

한국인 학습자의 영어 접속사 발화에 나타난 가장자리성조 패턴

Korean Speaker's Edge Tone Patterns of English Conjunctive Utterances

이 주 경*
Joo-Kyeong Lee

ABSTRACT

This paper shows the tonal patterns of English conjunctive utterances produced by Korean speakers of English, presenting that Korean speakers realize either the H- phrase tone or the H% boundary tone at the phrase-final part of the conjunctive utterances. Based on Pierrehumbert & Hirschberg's (1990) claim that either H- or H% tone indicates that a phrase is related to the following one, Korean speakers seem to produce the satisfactory patterns of edge tones in conjunctive sentences. In the experiment, we made up conjunctive sentences including both coordinate conjunctions such as *and*, *but*, *or*, and *so* and subordinate conjunctions like *if*, *when* and *though*. We varied the stimuli according to the existence of a comma and the lengths of connecting words and phrases. We also divided the subjects into two levels of English proficiency based on their English written test scores to see if Korean speakers' performance ability of edge tones is related with their general competence of English. Results show that Korean speakers produced 84% of the H- phrase tone in intermediate phrases and H-L% and L-H% boundary tones in intonational phrases. Also, coordinate and subordinate conjunctions show little difference in their tonal contours, and the existence of a comma or the lengths of connecting words and phrases do not affect Korean speakers' production of the H- phrasal tone and the H% boundary tone. This may suggest that pitch accents, rather than edge tones, should be put more focus on in teaching English intonation in Korea as much work has already shown that Korean speakers have serious problem with producing pitch accents in speaking English.

Keywords: phrase tones, boundary tones, edge tones, conjunctions

1. 서 론

최근 들어 한국인 영어 화자의 영어 억양패턴을 관찰한 연구가 매우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강선미, 2003; 신동현, 1999; 이주경의 2000; 이주경, 2005; 이혜숙, 2002 등등). 이들 연구는 한국인 영어 화자가 억양과 의미와의 밀접한 관계를 잘 파악하고 있는지, 또는 영어 억양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피치엑센트를 정확하게 구현하고 있는지 그리고 영어 문장의 종류에 따른 억양패턴을 한

* 서울시립대학교 영어영문학과

국인 화자는 어떻게 구별하여 구사하는지 등의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한국인 화자의 영어 억양패턴을 접근하였다. 본 논문은 기존 연구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던 피치액센트 분석에서 벗어나 억양과 의미와의 관계에 대한 이해여부를 접속문의 가장자리성조 구현에서 찾고자 하였다. 즉, 영어의 접속문장은 접속문의 연결 부분에서 고성조의 가장자리성조를 이용하여 뒤이어 또 다른 문장이 연속된다는 의미를 전달한다(Pierrehumbert & Hirschberg). 따라서 본 논문은 한국인 화자가 고성조의 가장자리성조가 내포하는 의미를 파악하는지, 그렇다면 영어 접속문의 연결부분에 이를 잘 구사하고 있는지를 조사하고자 한다.

한국인 화자의 영어 억양패턴 연구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내용은 영어 피치액센트 구현양상과 이에 관한 문제점이었다. 이는 아마도 영어 억양의 대부분을 구성하는 성분이 피치액센트이므로 접근이 용이하고 분석내용이 포괄적일 수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강선미(2003)는 한국인 화자의 영어 피치액센트 해지에 관한 연구에서 한국인 화자는 피치액센트 부여의 의미와 해지의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하여 피치액센트를 해지해야 할 화용론적 상황에서도 이를 잘 실행하지 못하였음을 발견하였다. 신동현(1999)은 한국인 화자는 다양한 영어 피치액센트 종류에 따른 의미 차이를 구분하지 못하여 억양과 의미와의 관계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할 뿐 아니라, 아울러 올바른 피치액센트를 할당하지 못한다고 하였다. 이해숙(2002)에서는 영어 억양은 피치액센트의 위치와 피치액센트 유형에 따라 다양한 패턴으로 구성이 가능하며 이는 동시에 의미의 차이를 가져온다는 점을 강조하고, 한국인 화자는 영어 능력수준에 관계없이 초점을 나타내기 위하여 원어민이 사용하는 것과 동일한 운율적 원리를 사용하지 않아 매우 어색한 억양을 구현한다고 하였다. 즉 협의 초점에는 피치액센트를 부여하고 나머지 항목은 액센트 해지로 문맥이 정해주는 초점을 구현해야 한다는 점을 알지 못한다는 것이다. 반면, 이주경(2005)은 한국인 화자는 영어의 저성조 피치액센트(L*)의 음향적인 특징을 실험하였다. 영어 저성조 피치액센트 L*는 음절의 소리 세기가 커지고, 모음의 길이가 길어짐과 동시에 피치가 하강해야 하는데, 한국인 화자들은 저성조 피치액센트를 부여하지 못하거나 부여하더라도 음절의 길이를 길게 하지 못하고, 소리 세기도 원어민 만큼 높이지 못하며, 동시에 피치의 하향폭도 낮지 않아서 저성조 피치액센트의 인지에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러한 기존 한국인 화자의 피치액센트 분석과는 달리 이주경외(2000)에서는 영어 조건의 의미를 나타내는 다양한 종류의 문장(if절, if를 포함하지 않는 절, 명령문 +and)을 제시하고 이들 문장의 접속부분에 나타나는 가장자리 성조를 조사하였다. 여기서 발견한 결과는 실험에 참여한 대부분의 한국인 화자는 저성조의 구액센트(L-)나 경계성조(L%)를 구현함으로써 조건의 의미를 갖는 선행절과 후행하는 주절 사이의 의미적 연관성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연구 역시 한국인 화자의 영어 피치액센트 구현에 관한 분석이 아닐 뿐 다양한 접속문의 연결부분에 나타나는 가장자리성조의 구현을 구체적으로 연구대상을 삼지는 않았다. 오히려 한국인 화자가 조건의 의미를 파악하고 있는지를 가장자리성조라는 억양의 도구를 이용하여 조사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기존의 대부분의 연구가 피치액센트 분석을 중심으로 한 것임을 밝히고, 한국인 화자가 다양한 접속사로 연결된 영어 접속문을 발화할 때 접속부분의 억양을 어떻게 구현하는지에 대한 양상과 선행절과 후행절 사이의 밀접한 접속관계의 표현 능력의 여부를 판단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영어의 구액센트는 고성조 구액센트 H-와 저성조 구액센트 L-가 있으며, 구액센트는 중간구(intermediate phrase)에 해당하는 정보를 전달하고 후행구와 관련성을 표현해준다(Pierrehumbert & Hirschberg). 즉, H-는 마지막 피치액센트가 이후에 기본주파수가 떨어지지 않고 유지(sustained)되는 곡선을 이루며 정보전달의 미결형으로서 뒤이어 의미적으로 관계가 있는 또 다른 구가 이어질 것임을 암시한다. 반면에 L-는 마지막 피치액센트 이후에 기본주파수가 급격하게 떨어지고 이후에 이어질 구와는 의미적으로 연관성이 없음을 시사한다. 예를 들어 다음 (1)의 (a)와 (b)는 같은 문장이지만 접속사로 연결된 부분에서 고성조의 구액센트로 연결되었느냐 저성조의 구액센트로 연결되었느냐에 따라 그 의미적 차이를 볼 수 있다. 즉, (a)의 H-는 ‘닭고기 스프를 먹은 결과 병이 났다’는 인과관계를 내포하지만, 반면에 (b)의 문장은 스프를 먹은 것과 병이 나온 것은 인과 관계에 의한 것이라고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지만 반드시 이 둘이 필연관계에 있는 것은 아니며 다른 원인에 의해 병이 났을 수도 있음을 전달하려 한다는 점에서 그 차이가 있다. 이처럼 고성조의 피치액센트 H-는 선행 중간구와 후행 중간구 사이의 인과관계를 표시하기도 하고, 또한 (c)에서처럼 조건의 의미를 나타내기도 한다. 즉, 선행 중간구가 후행 중간구에 대해서 ‘또 다른 과자를 먹는다면’이라는 조건의 의미를 전달하고 있으며, 이 조건에 대한 결과로 후행 중간구와 의미적 연관성을 맺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저성조 구액센트 L-는 현재 발화하는 중간구가 뒤따르는 중간구와 해석상 분리됨을 의미한다. 즉, L-구성조로 분리되는 각각의 중간구는 전체 문맥 속에서 해석되기 보다는 개별적인 지위를 갖는다는 것이다.

(1) a. George ate chicken soup and got sick.

H* H* H* H- H* L-L%

b. George ate chicken soup and got sick.

H* H* H* L- H* L-L%

c. Eat another cookie and I'll kill you.

H* H- H* L-L%

(Pierrehumbert & Hirschberg, 1990)

경계성조는 억양구(intonational phrase)의 마지막 음절에 나타나는 성조로서, 고성조 경계성조 H%와 저성조 경계성조 L%가 있다. 구성조가 중간구와 중간구의 의미적 연관성에 관한 정보를 전달하는 반면, 경계성조는 상위 단위인 억양구와 억양구 사이의 의미적 연관성에 관한 정보를 전달한다고 할 수 있다(Pierrehumbert & Hirschberg, 1990). 즉, 고성조 경계성조 H%는 선행하는 구액센트와의 결합양상에 따라 뒤이은 억양구와 연관성 및 문장의 종류가 결정된다. 고성조 구액센트 H-와 고성조 경계성조 H%가 결합하면 H-H%의 가장자리성조가 형성되어 보통 의문문을 표현하며, 저성조 구액센트 L-와 저성조 경계성조 L%가 결합하면 L-L%의 가장자리성조가 형성되어 보통 평서문을 표현하게 된다. 그러나 구액센트나 경계성조가 둘 중 하나가 고성조가 되면 L-H% 또는 H-L%의 결합이 되고, 의미적으로 뒤이은 억양구와의 밀접한 연관성을 시사한다.¹⁾

예를 들어, (2)의 발화를 살펴보면, (a)와 (b)의 문장에서 평서문이지만 저성조 구액세트 L-와 결합된 고성조 경계성조 H%를 결합하였기 때문에 (a)와 (b) 문장은 (c)와 특별한 관련성을 갖는 것으로 해석된다. 즉, 달고 칼로리가 높은 음식에 'cake'과 'pie'가 모두 포함됨을 H%로 사용하여 표시하였고, 반면 문장(c)는 L%를 사용하여 연관된 발화가 이것으로 완료되었음을 의미한다.

(2) a. George likes cake.

L-H%

b. He adores pie.

L-H%

c. He'll eat anything that's sweet and calorific.

L-L%

(Pierrehumbert & Hirschberg, 1990)

3. 가 설

앞 단원 2. 이론적 배경에서 언급한 기존 연구에 근거하여 본 논문에서는 다음 (3)과 같은 가설을 세울 수 있다. 즉, 영어고성조 구액세트나 경계성조는 후속하는 구와의 의미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나타내므로 영어 접속문장의 접속부분 억양은 고성조 구액세트 H-또는 가장자리 성조 L-H%나 H-L%가 실현되어야 한다.

(3) 가설: 접속문장의 접속부분에 나타나는 억양패턴이 중간구의 경우 고성조 구액세트 H-가 나타나거나, 억양구의 경우 L-H%의 조합이나 H-L%조합이 나타나면 성공적인 발화이다.

4. 실 험

4.1 실험절차

본 실험에 참여한 한국인 영어화자는 서울시 성북구 소재 인문계 고등학교 1학년 여학생 10명이었으며, 이 중 5명은 영어 성적 상위자, 나머지 5명은 영어 성적 하위자중에서 선발하였다. 이들은 모두 영어권 국가에서 거주한 경험이 없는 영어 학습자이다. 본 실험은 접속사가 포함된 영어 문장에서 접속부분에 나타나는 가장자리성조를 조사하는 실험으로서, 접속사는 등위접속사와 종속접속사로 다양화 하였다. 등위접속사 문장은 and, but, or가 포함된 문장들로 구성하였으며, 종속접속사 문장은 if, when, though가 포함된 문장들로 구성하였다. 특히 등위접속사 문장은 접속사 사이

1) 물론 L-H%나 H-L%는 선행하는 피치액센트의 유형에 따라 다양한 결합을 형성하며, 이는 영어 발화의 다양한 의미를 나타낸다(Pierrehumbert & Hirschberg, 1990).

의 연결되는 부분의 길이를 조정하여 명사+명사(예, apples and bananas)와 같은 한 단어만으로 연결된 접속문과, 이보다 조금 더 길이를 길게 만든 명사구+명사구(예, yellow bike and red car), 그리고 조금 더 긴 접속부분인 동사구+동사구(예, stood up quickly and ran out of the room), 마지막으로 접속부분이 가장 긴 문장 + 문장(예, The man waved a flag and the train began to move slowly)으로 접속부분의 길이를 다양화하였다. 이는 접속부분의 길이가 가장자리성조 실현에 영향을 주는지를 관찰하기 위해서였다. 그리고 각 등위접속사 마다 4 가지의 서로 다른 접속부분 길이에 따른 4 가지 문장을 3 개씩 만들어 모두 36 개(3×3×4)의 실험문장을 형성하였다.

종속접속사 문장의 경우에는 if, when, though가 포함된 문장을 만들었는데, 접속사절이 문장의 앞에 오는 경우를 3 개와 접속사절이 문장의 뒤에 오는 경우를 3 개 만들고, 각 종속접속사마다 6 개의 문장을 만들어, 18 개의 종속접속사문 문장을 형성하였다. 이는 접속사문장이 선행하느냐 후행하느냐에 의하여 접속부분의 가장자리성조가 영향을 받는지를 관찰하기 위해서였다. 등위접속사 문장 36개와 종속접속사 문장 18개를 합하여 모두 54개의 서로 다른 접속문장을 만든 뒤, 이를 각 2회씩 반복하여 전체 108개를 완전히 순서를 뒤섞었다. 이렇게 형성된 108 개의 문장은 접속부분의 콤마(comma)의 여부가 올바른 가장자리성조 실현에 영향을 주는지의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1회 녹음시에는 완전히 콤마를 없애고 녹음을 하였고, 2회는 모든 등위접속사 앞에 콤마를 넣거나 접속사와 주절 사이에 콤마를 넣은 문장들이었다.²⁾ 그러므로 1인당 발화 문장 수는 한국인 영어 학습자의 경우 108 문장(54 문장×2 회)이고, 모두 10 명의 화자가 참여하였으므로 분석문장은 총 1080 개(108 문장×10 명)이었다.

다음의 <표 1>은 실험문장의 일부로서 등위접속사 ‘and’ 문장의 접속부분 길이에 따라 4 가지 종류의 길이가 나온다. 즉, 접속부분이 짧은 순서대로 명사+명사, 명사구+명사구, 동사구+동사구 그리고 문장+문장이 가장 긴 접속문장이 된다. 이와 같이 구성된 12 개의 and 문장처럼 등위접속사 but과 or 역시 12 개의 서로 다른 길이의 문장을 형성하였다.

표 1. 등위접속사 ‘and’의 실험문장

명사+명사	I bought apples and bananas.
	She met Mary and Mike.
명사구+명사구	He can speak English and French.
	We need green jackets and white skirts.
	He wrote two poems and three stories.
동사구+동사구	I want to buy a yellow bike and a red car.
	She stood up quickly and ran out of the room.
	He waved good-bye and went down the street.
문장+문장	She was born in a little town and raised in a big city.
	He played the piano and she sang a beautiful song?
	My sister went to the party and my brother went to the movies.
	The man waved a flag and the train began to move slowly.

2) 등위접속사 문장에서 문장+문장으로 연결된 접속문의 경우나 종속접속사 문장에서 종속절이 선행하는 경우는 모두 콤마를 넣지 않으면 비문법적 표현이 될 수 있으나, 본 실험에서는 콤마의 영향을 관찰하기 위하여 일괄적으로 모든 문장에 콤마를 넣은 경우와 넣지 않은 두 가지 경우를 설정하였다.

다음 <표 2>는 종속접속사의 녹음문장을 보여준다. 각 접속사에 해당하는 접속문장을 3개씩 구성하였다.

표 2. 종속접속사의 실험문장

if	If you work harder, you will succeed.
	If it is find this weekend, we'll play soccer.
	If you don't hurry up, you will miss the bus.
when	When he was sixteen, he moved here.
	When you get there, write me a letter.
	When she saw me, she began to cry.
though	Though she is poor, he is happy.
	Though I was tired, I had to take her to the concert.
	Though he lived in England for a long time, he cannot speak English.

녹음을 시작하기 전에 피실험자들에게 실험문장을 잠시 읽을 기회를 주어 실험문장에 익숙해질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였고, 녹음은 Sony ECM-MS907 마이크를 사용하여 Sony DAT(Digital Audio Taper) TCD-D100 녹음기로 녹취한 뒤 Pitchwork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본 주파수 곡선을 도출하고 ToBI 전사 체계에 근거하여 가장자리성조를 분석하였다.

3.3 실험결과

한국인 학습자의 전체 총 발화 수 1080 개 중 구액센트(phrase accent)와 경계성조(boundary tone)를 구현한 1068 개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 <그림 1>과 같다.³⁾ 접속사 앞의 하나의 중간구조로 발화한 경우, 고성조 구액센트 H-를 실현한 비율은 77%(819/1068 문장), 저성조 구액센트 L-를 실현한 비율은 5%(57/1068 문장)로 나타났다. 접속사 이후를 또 다른 하나의 억양구조로 발화하여 L-L% 가장자리 성조를 구현한 경우는 5%(57/1068 문장), H-L%를 구현한 경우는 2%(20/1068 문장), L-H%를 구현한 경우는 5%(51/1068 문장)로 나타났다. 반면 H-H% 가장자리 성조가 나타난 경우는 하나도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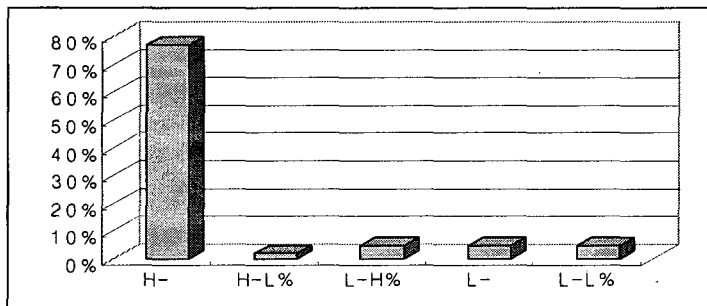


그림 1. 전체 화자의 가장자리 성조 패턴과 비율

3) 전체문장 중에서 가장자리 성조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은 12 개의 발화는 제외하였다.

위의 결과를 (3)에 제시한 가설에 의하여 성공적인 발화와 그렇지 못한 발화를 구분을 하면, H-, L-H%, H-L%의 패턴을 보인 경우가 성공적인 발화이며 84%를 차지하며, 성공적인 발화가 아닌 L-와 L-L%의 패턴은 10%에 그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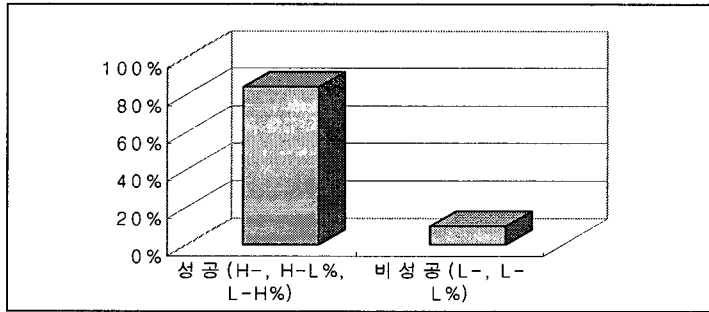


그림 2. 전체화자의 가장자리 성조의 성공발화 비율

다음은 피실험자의 영어 지필고사 성적에 따른 상위권 5 명과 하위권 5 명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이다. <그림 3>에서 볼 수 있듯이, 영어 지필고사의 성적과 올바른 가장자리 성조의 구현 비율은 수치상으로 차이가 거의 없으며, 상위권 학생의 경우 H-나 H-L% 또는 L-H%를 구현하여 성공적인 발화를 한 경우가 82%이고 L-나 L-L%를 구현하여 성공적이지 못한 발화를 한 경우가 18%인 반면에, 하위권 학생의 경우는 성공적인 발화가 84%, 그렇지 못한 발화가 16%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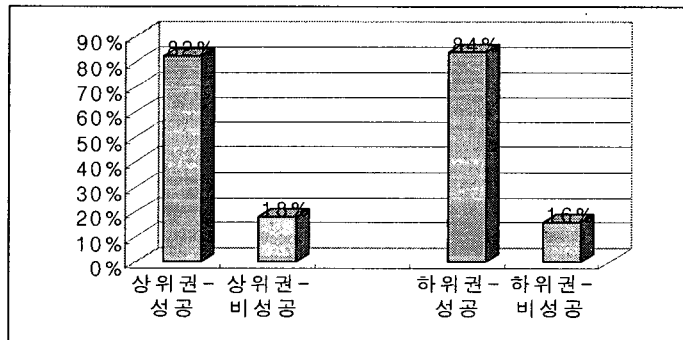


그림 3. 화자의 수준별 가장자리 성조 성공비율

다음은 등위접속사 문장의 경우 접속부분의 길이에 따른 가장자리 성조 패턴과 비율에 대한 결과이다. <표 3>에서 보여주듯이, 접속사로 연결된 부분이 '명사+명사'로 이루어져 가장 짧은 접속부분으로 구성된 경우, H-는 84%, H-L%는 1%, L-H%는 2%, L-는 6%, L-L%는 1%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긴 접속부분인 '명사구+명사구'인 경우 H-는 77%, H-L%는 2%, L-H%는 2%, L-는 7%, L-L%는 3%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긴 접속부분인 '동사구+동사구'인 경우는, H-는 75%, H-L%는 1%, L-H%는 3%, L-는 4%, L-L%는 5%로 나타났으며, 가장 긴 접속부분인 '문장+문장'의 경우는 H-는 68%, H-L%는 1%, L-H%는 4%, L-는 8%, L-L%는 7%로 나타났다.

표 3. 등위접속사로 연결된 구와 절의 길이에 따른 전체학생 발화율

구성조	명사+명사	명사구+명사구	동사구+동사구	문장+문장
H-	84%	77%	75%	68%
H-L%	1%	2%	1%	1%
L-H%	2%	2%	3%	4%
L-	6%	7%	4%	8%
L-L%	1%	3%	5%	6%
실패	6%	9%	12%	13%

위의 표에 제시된 비율을 성공적인 가장자리 성조 발화비율과 그렇지 못한 발화비율로 나누어 다음 <그림 4>에 제시하였다. 즉, 올바른 가장자리 성조를 구현한 경우가 '명사+명사'일 때는 97%, 명사구+명사구는 81%, 동사구+동사구는 79%, 문장 문장은 73%로 나타나, 등의접속사로 연결된 접속부분의 길이가 길수록 성공적인 가장자리 성조의 발화율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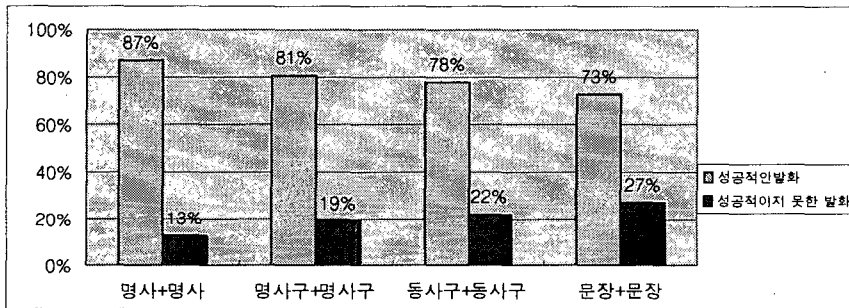


그림 4. 등위접속사 문장의 접속부분 길이에 따른 성공:비성공 발화비율

다음 <표 4>는 종속접속사 if, when, though가 포함된 문장에서 접속사절을 문장의 앞에 위치시켰을 경우와 뒤에 위치시켰을 경우에 나타나는 가장자리 성조 패턴을 보여준다. 종속접속사절이 앞에 있는 경우는 H-가 구현된 비율이 77%, H-L%가 2%, L-H%가 12%, L-와 L-L%는 각각 2%와 7%였으며, 종속접속사절이 뒤에 있는 경우는 H-는 75%, H-L%는 2%, L-H%는 3%, L-는 7%, L-L%는 10%로 나타났다.

표 4. 종속접속사절의 위치에 따른 가장자리 성조 패턴과 비율

구성조	접속사절이 앞	접속사절이 뒤
H-	76%	75%
H-L%	2%	2%
L-H%	12%	3%
L-	2%	7%
L-L%	7%	10%
실패	1%	3%

위의 표를 다시 고성조가 포함된 성공적인 발화와 그렇지 못한 발화로 나누어 그래프로 제시하면 <그림 5>와 같다. 중속접속사절이 앞에 올 경우 구성조나 경계성조를 성공적으로 발화한 비율은 90%, 중속접속사절이 뒤에 왔을 경우는 80%임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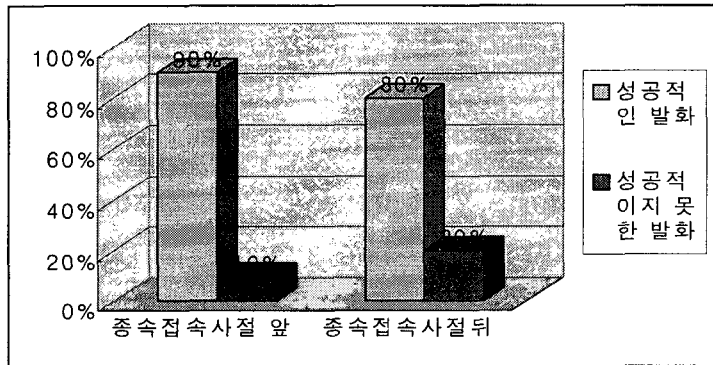


그림 5. 중속접속사 위치에 따른 성공적인 가장자리 성조 발화비율

마지막으로 콤마의 유무에 따른 가장자리 성조의 패턴과 비율에 대한 결과이다. <표 5>가 보여 주듯이, 모든 접속문장에서 콤마를 제거하고 녹음한 경우, H-가 나타난 비율이 76%, H-L%가 1%, L-H%은 3%, L-와 L-L%는 각각 4%와 5%의 결과로 나타났다. 반면 모든 접속문장에서 콤마를 포함하여 녹음한 경우는, H-가 나타난 비율이 75%, H-L%는 1%, L-H%는 6%, L-는 8%, L-L%는 4%의 결과를 보였다.

표 5. 콤마의 유무에 따른 구성조 발화비율

가장자리 성조	콤마 포함	콤마 제거
H-	76%	75%
H-L%	1%	1%
L-H%	3%	6%
L-	4%	8%
L-L%	5%	7%
실패	11%	4%

위의 결과 중 고성조가 포함된 성공적인 발화가 콤마가 포함된 실험에서는 80%로 나타났고, 콤마가 제거된 실험에서는 82%로 나타났다. 이를 그래프로 나타내면 <그림 6>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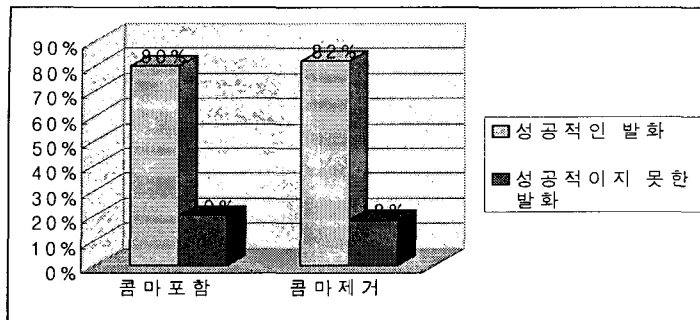


그림 6. 콤마의 유무에 따른 가장자리 성조 발화비율

4. 논 의

지금까지 제시한 실험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논의할 수 있다. 첫째, <그림 2>에서 제시한 바 있듯이, 한국인 화자의 영어 접속문 가장자리 성조 성공비율은 평균 84%로 상당히 높았다. 이는 기존 한국인 영어화자의 억양연구에서 발표된 피치액센트의 구현과는 그 양상이 상당히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즉, 기존의 연구에 의하면 한국인 영어 화자는 올바른 피치액센트 구현에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한국인 영어화자는 피치액센트의 활용론적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여 협의초점을 받아야하는 특정 단어에만 고성조 피치액센트를 구현하여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단어에 모두 고성조 피치액센트를 실현시키는 경향이 있었다(강선미, 2003; 신동현, 1999; 이혜숙, 2002). 또한 영어 L*의 발화는 피치를 충분히 하강함과 동시에 소리의 세기를 증가시켜야함에도 불구하고 피치의 하강정도는 약하고 소리의 세기도 함께 하락하여 피치액센트의 흔들림이 표현하지 못하였다(이주경 2005). 따라서 충분한 피치의 하강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는 문미의 고성조 가장자리 성조인 H-H%는 원어민처럼 자연스럽게 발화할 수 없었다.

둘째, 올바른 가장자리 성조를 발화하는 비율이 영어지필고사 성적과 비례하지 않았다. 즉, 상위권과 하위권 화자의 성공적인 가장자리 성조 발화 비율은 수치적으로 크지 않았으며(각각 82%와 84%), 이는 상위권학생들은 개인 편차가 심해서 어떤 학생은 100%, 또 어떤 학생은 구성조를 44% 밖에 올바르게 발화하지 못한데 원인이 있기도 하지만 전반적으로 영어 지필고사의 성적과 올바른 가장자리 성조의 발화와의 관계를 찾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은 아마도 고성조가 포함된 가장자리 성조는 영어를 배우는 동안 학습된 것이 아니라 한국인 화자라면 자연스럽게 습득되거나 아니면 한국어 접속문의 억양양상과 비슷하여 전이(transfer)된 것이라 추측할 수 있다. 다시 말해 한국어 접속문의 연결부분은 뒤이어 또 다른 구나 절이 이어지는 상황이므로 상승조를 끝나는 'LHLH' 액센트구(Accentual Phrase)가 실현된다(Jun, 2000). 따라서 상승조인 H-이나 L-H% 구사에는 어려움을 덜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해석은 첫 번째 결과와 일맥상통하다. 기존 연구에 의하면 한국인 화자는 영어의 피치액센트에 대한 발화에 대하여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를 보였지만, 본 연구에서는 접속문 경우 고성조를 포함하는 가장자리 성조는 성공적으로 구사하였다. 이

는 한국어 화자의 경우는 피치액센트의 화용론적 의미를 파악하여 정확하게 구사하는 것 보다는 한국어의 액센트구와 비슷한 상승조를 쉽게 전이하여 영어 접속문의 가장자리 성조를 구현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셋째, 등위접속사로 연결된 부분의 길이에 따른 결과를 기억하면, <표 3>와 <그림 4>와 같이 접속사로 연결된 부분이 길어질수록 올바른 가장자리 성조 발화비율이 떨어졌다. 이는 등위접속사로 연결된 구와 절이 길어지면 한국인 학습자들은 전반적으로 H-구성조의 발화비율이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다시 접속부분이 길어질수록 접속사 앞의 구나 절이 끝나는 부분의 가장자리 성조를 내림조로 하는 경향이 크다는 것을 나타낸다.

넷째, 종속접속사의 위치에 따른 올바른 가장자리 성조 발화비율은 종속접속사절이 앞에 있을 때와 뒤에 있을 때가 차이가 별로 없었다. 그러나 한 가지 주목할 점은 <그림 5>의 '종속접속사 위치에 따른 성공적인 가장자리 성조 발화비율'에서 볼 수 있듯이, 종속접속사절이 주절보다 선행하면 고성조의 가장자리 성조 발화비율이 종속접속사절이 후행할 때보다 약 10% 높은 것을 알 수 있다(각각 90%와 80%).⁴⁾ 구체적으로 이러한 차이는 <표 4>의 '종속접속사절의 위치에 따른 가장자리 성조 패턴과 비율'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접속사절이 선행할 때 L-H%비율이 조금 더 높고, 접속사절이 후행할 때 L-와 L-L%가 더 높은 비율을 보여 10%의 차이를 만들었다. 이는 아마도 한국인 학습자는 영어의 종속접속사 문장을 이해할 때, 접속사절이 선행하는 경우는 접속사절이 끝날 때 의미적으로 연결되는 주절의 출현을 기대하는 경향이 있으며, 반면 종속접속사절은 의미적으로 주절의 의미를 분명하게 해주는 보조적인 역할만 있으므로 주절이 먼저 선행하는 경우에는 종속접속사가 뒤이어 나오는 상황을 미처 파악하지 못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주절이 끝나는 시점에서 저성조를 실현하여 후행하는 접속사절의 의미적 연관성을 전달하지 못하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이러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종속접속사절이 선행하거나 후행하는 모든 경우에 약 90%와 80%의 높은 고성조 성공률을 보이므로 접속사의 위치는 접속문의 가장자리 성조 구현에 그리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콤마의 유무에 의한 올바른 가장자리 성조 비율 역시 큰 차이가 없었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인 학습자가 접속문장에서는 접속사로 연결된 종속절과 주절의 의미적 관계를 성공적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따라서 콤마의 '유/무에 관계없이 고성조의 경계성조를 발화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5. 결 론

지금까지 본 논문에서는 한국인 화자가 영어 접속문의 접속부분에 구현하는 다양한 가장자리 성조 양상에 관하여 관찰하였다. 이번 실험을 통하여 우리는 접속문의 가장자리 성조는 피치액센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성공적인 발화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이는 피실험자의 영어지필고사 등급과는 관계가 없었음도 발견하였다. 또한 이러한 만족스러운 가장자리 성조 구사능력은 학습

4) 종속접속절의 위치에 따른 성공비율의 차이(90%와 80%)에 대하여 논의를 제기하여 주신 심사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과는 관계없이 한국어의 상승조 액센트가 전이된 결과라고 추정할 수 있었다. 따라서 한국인 대상의 영어 억양교육은 가장자리 성조보다는 피치액센트가 중점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한 실례라고 할 수 있겠다.

참 고 문 헌

- 강선미. 2002. *영어 초점발화에서의 원어민과 한국인의 억양비교*, 고려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구희산. 1989. "영어와 한국어의 억양 대조 분석." *영어교육*, 제 38호 한국영어교육학회, 47-63
- 구희산. 1991. "한국인의 영어 억양에 관한 음성학적 연구." *영어교육*, 제42호, 89-105
- 김기호. 1990. "영어 억양 음운론의 소개: 영어 억양을 중심으로." *음성과학*, 제6호, 119-143
- 신동현. 1999. *영어 초점 발화에 나타난 원어민과 한국인 화자의 억양 비교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이명숙. 2004. *영어 의문문을 이용한 영어 억양지도*, 서울시립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은자. 2005. *가장자리 성조 억양을 이용한 효과적인 영어 억양 지도*, 서울시립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주경, 공은정, 김기호. 2000. "영어 조건절의 경계억양과 담화해석에서 영어억양의 역할." *음성과학*, 제 8권 2호, 149-163.
- 이주경. 2005. "한국인 학습자의 영어 저성조 피치액센트 발화의 문제점." *음성·음운·형태론 연구*, 제 11권 2호, 353-366.
- 이혜숙. 2002. *초점과 정보 구조에 따른 영어 억양 실현 양상*, 고려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Beckman, M. & Elam, G. A. 1993. *Guidelines for ToBI Labelling*. version 3.0, March 1997
- Beckman, M. & Pierrehumbert, J. 1986. "Intonational structure in Japanese and English." *Phonology Yearbook*, 3, 255-309
- Bolinger, D. 1958. "A theory of Pitch Accent in English." *Word*, 14, 109-49
- Jun, Sun-Ah. 2000. *K-ToBI Labelling Conventions* (version 3.1), Ms. UCLA.
- Ladefoged, P. 1982. *A Course in Phonetics*, 2nd Ed. New York: Harcourt Brace Jovanovich
- Pierrehumbert, J. & Hirshberg, J. 1990. "The meaning of intonational contours in the interpretation of discourse," in Cohen P. R., J. Morgan, & M. E. Pollack (eds.) *Intentions in Communication*, 271-311.
- Pierrehumbert, J. B. 1980. *The Phonology and Phonetics of English Intonation*. Ph. D. Diss. MIT

접수일자: 2005. 11. 10

게재결정: 2005. 11. 30

▲ 이주경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전농동 90 (우: 130-743)

서울시립대학교 문리과대학 영어영문학과

Tel: 82-2-2210-5635

E-mail: Jookyeong@uos.ac.kr